

2022년 사순 시기를 맞이하는 춘천교구 하느님 백성에게 드리는 서한

“여러분은 현세에 동화되지 말고
정신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게 하십시오.”(로마 12,2ㄱ)

그동안 우리는 코로나 이전의 세상에서는 꿈조차 꾸지 못했던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편안하게 머물렀던 성당의 마당은 싸늘한 시선을 교환하는 공터로 변했고, 우리 각자는 잠재적 확진자가 되어 서로를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코로나가 정말로 무서운 점은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냉소적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화합, 소통과 나눔을 쓸모없는 것으로 바라보는 그 모든 눈빛과 시도들은 코로나가 우리에게 심어 준 가장 큰 유혹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방식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분명 소통할 수 있었고 마음을 나눌 수 있었으며 사랑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바이러스라는 장벽을 뛰어넘어 사랑의 삶을 살고자 하였고 나눔의 삶을 그치지 않았던 수많은 노력과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팬데믹은 우리가 헤아리지 못했던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는 다층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우리가 사는 세상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세계화’라는 말은 긍정적 의미로 쉽게 사용되었지만, 지금 우리는 세계화 뒷면에 있는 어두움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반대편까지 촘촘하게 이어진 연결망은 우리를 순식간에 병들게 하였고, 이것은 그 자체로 커다란 두려움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지난 시간을 성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 각자는 생태 공동체의 작은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얼마만큼 깊이 성찰하여 삶을 변화시켜 실천하는가에 따라 우리가 사는 세상은 현저히 달라질 것입니다. 파올로 지오르다노는 우리가 생태계를 이루는 일부임에도 그것을 넘어 생태계를 침략하고 있는 종임을 경고합니다.

“바이러스는 환경 파괴로 생겨난 수많은 피난민 중 하나다. 그 옆에는 박테리아, 곰팡이, 원생동물이 있다. 잠시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면, 이 새로운 미생물들이 우리를 찾아온 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쫓아내고 있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섬세하고 숭고한 생태계에서 우리야말로 가장 침략

적인 종이라는 것을 성찰해야만 한다.”

- 파울로 지오르다노, 「전염의 시대를 생각한다」

팬데믹이 끝나 일상이 회복되면 우리는 주변의 미물들을 다시 침략하며 살아가게 될지 모릅니다. 이런 고통의 시간을 반복해서 겪지 않으려면 성찰할 수 있는 지혜와 서로에 대한 연민으로 생태계를 보호하는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인간과 자연의 조화라는 말은 막연한 언어적 유희로 끝날 수 있습니다. 나 스스로 자연의 한 귀퉁이임을 인식하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마음 깊이 연대해야 할 것입니다.

춘천교구 하느님 백성 여러분!!

하느님과 함께 깨어 의식하는 신앙의 삶 안에서 세상의 작은 변화를 서서히 이끌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신앙인들은 효율적인 가치만을 추구하는 세상의 흐름 앞에서,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은 삶에 좀 더 눈을 돌려, 걷고 땀을 흘리며, 손수 장만하고 꾸려 나가며 검소함과 불편함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삶을 살 때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분명 삶의 소중함을 체험할 것입니다. 신앙의 쇄신은 분명 이러한 작은 삶의 변화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느님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십시오.”(로마 12,2)**

이제 곧 사순 시기가 시작됩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그분 수난의 고통을 깊이 묵상하며 부활을 준비합시다.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이 시간을 잘 이겨 내시기를 두 손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춘천교구 하느님 백성을 사랑하는 춘천주교 김주영 시몬